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f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핑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44.9189

한국학교 : [stfranciscs@gmail.com](mailto:stfranciscs@gmail.com)

## 제1독서 말라 3,19-20L

### 화답송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 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제2독서 2테살 3,7-12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

### 복음 루카 21,5-19

- 성가 입당 68 기쁨과 평화넘치는  
 예물준비 459 너희는 가진 것 팔아  
 영성체 154 주여 어서 오소서  
 파견 59 주께선 나의 피난처

##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허향연 소화데레사	익명
박현진 스테파노	김보나
박남성 요셉프란치스코	양미숙 마리아
이대형 안드레아, 이묘자 데레사	이명숙 루시아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	우리 즐거움의 원천
양세안 요셉	황경숙 루시아
양세안 요셉	양미숙 마리아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세상 떠난 병사	은총의 샘 꾸리아
이태원 참사로 세상 떠난 156 영혼	은총의 샘 꾸리아
유형일	유희순 그레이스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김지영 유스티나
최치혜	김지영 유스티나
생미사	봉헌
한서희 데레사	박알버트, 아녜스
한미영 안나, 한서희 데레사	익명
조진희 요한	김유화 데레사
백승훈 야고버	익명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	김기레 레지나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 김효주 수녀님	안선정 마리아나
공동체 감사	안선정 마리아나
윤영호 로마노, 백영숙 생일축하	윤루시아
김진섭 야고보	익명
이아릴 수산나	익명
이지연 안젤라	익명
배수아 마들렌 소피바라	익명
황경숙 수산나, 생일	김기레 레지나
강호영 안드레아 칠순	김기레 레지나
유경자 데레사 건강	김기레 레지나
김흥기 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박창현 생일	이경자 율리안나
황경숙 수산나	익명
청년성서 모임	미주성서모임 동부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1월13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정은철 프란치스코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유정옥 유스티나	한서희 데레사	-
11월20일	이지훈 아녜스	백승민 안드레아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중선 비비안나	한데레사, 최사도요한, 양글라라, 김마리아 김요셉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성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견진 교리	매주 주일 11:00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미사 후 친교 모임:** 주일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히브 13,2

**한인공동체 설립 25주년 기념 사랑의 음악회**

12/4(일) 오후 2시~ 4시, 윗성당

**봉성체 신청**

‘몸이 편찮으신 분’ ‘연로하셔서 주일 미사에 못오시는 분’은 봉성체  
신청하세요! 신부님께서 매월 첫째주 목요일 방문하여 영성체와 안수  
를 해드립니다. \*신청:사무실 347-834-5784

**위령성월, 가족 묘지에서 봉헌하는 미사**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위령성월에 가롤로  
신부님과 함께 가족 묘지에 가서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지향 예물> 접수 안내**

신학적 의미의 미사예물이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빵과 포도주’  
입니다. 개별적으로 미사지향을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그동안 <미사예물>  
이라고 불러왔던 <미사지향 예물>을 봉헌하실수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다음의 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상에 대하여: <미사지향 예물>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신청하실 때 외상으로  
하는 경우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문자나 전화접수 자제 부탁드립니다.  
신청: 주일미사후 다미아노 홀. 원하는 미사 신청일 한 주전까지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11/27(대림 1주일)부터 실행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유아세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기도회 기도모임**

11/15(화) 오후 6시 Conf. Rm(2F)

이주민, 난민(텍사스, 애리조나에서 온)을 위해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생필품 : 비누, 삼푸, 의복, 양말, 티월, 칫솔 등을 후원해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후원금 : \$1,010 성모회, 연령회, 표해심, 임금중, 김중선, 김승범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2. 온라인 주보의 경우, <우리들의 정성> 코너는  
삭제되며, 성당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인쇄본 주보에만 게시됩니다.
3. 우편으로 체크를 보내실 경우, 보내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송금 후 수녀님 전화 :  
347-834-5784 로 연락 바랍니다.
4. “기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한인공동체 교무금이  
아니라, 미국 본당을 위해 사용됩니다.



◆ 위령성월기도 시편 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十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十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十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단체 모임

견진성사교리반	매주 주일 11:00	Korean Conf.Rm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교육관 3A
우리즐거움의원천 Pr.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D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Conf. Rm(2F)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13:30	교육관 3B
청년회	매주 주일 10:30	교육관 2A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18:00	Conf. Rm(2F)
신명풍물패	2,4 주일 14:00	교육관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Conf. Rm(2F)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교육관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Conf.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교육관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애도 말씀

"서울에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밀려들어  
빛어진 결과로 목숨을 잃은 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해주세요  
투병 중이신 분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5

- |              |          |
|--------------|----------|
| 김순한 루시아      | 김옥지 아가다  |
| 이경희 미카엘라     | 김동희 헬레나  |
| 정창동 폴리나      | 지군자 스테파니 |
| 진정은 마리아      | 이진자 세실리아 |
| 고종호 마태오      | 이병국 요한   |
|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 박명순 모니카  |
| 한시찬 라파엘      |          |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ISC**  
**NEW YORK**  
International Student Consulting  
졸업/OPT 후 진로고민 및  
진학/취업/자기소개서/면접준비 무료상담  
iscnewyorkmetro@gmail.com  
1-917-386-7405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law@gmail.com

**원조**  
NEW WONJO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212-594-7773  
646-808-7322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212-203-0072  
Kakaotalk ID: nycacu

광고주를 찾습니다  
☺

광고주를 찾습니다  
☺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루카 21,5-19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돌과 예물에 혼을 빼앗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이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심으로써 인간의 무력함을 강조하십니다.

당시의 성전은 10년 이상 공들여 건축되었으며 기록에 의하면 돌 하나의 길이는 약 12미터 반, 너비는 4미터, 폭은 5미터라고 하니 2000년 전의 제자들이 감탄할 법도 합니다. 성전의 예물은 헤로데 대왕의 봉헌물인 황금의 포도나무였다고 전해지는데, 이 포도의 금송이는 사람 하나와 같았다고 하니 그 화려함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건물의 화려함 앞에서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모두 다 허물어질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이후 70년 경, 실제로 이 성전은 로마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실 로마군 역시 이 신전만큼은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려 했지만 한 병사의 방화로 결국 돌 하나 남지 않고 소각되어 버립니다. 결국 오늘 의 복음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들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연 재해와 기근과 전염병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력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니 이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예언하십니다. 제자들이 총독들 앞으로 끌려나갈 것이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현대의 우리들과 관련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으로 인한 박해는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핍박은 없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들, 우리를 박해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각적인 것들과 물질의 유혹, 바쁜 일상, 봉사를 할 때 느껴지는 손실감과 손가락질, 성당에 나가기 싫다고 하는 자녀들에 대한 타협.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유혹이며 박해입니다. 이 밖에도 점점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는 신앙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과 비웃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우리에게 올바른 언변과 지혜를 주기로 약속하시는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견디어 내는 동안 결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려 노력하는 우리들을 그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습니다. 자칫 겉으로만 보면 물리적인 손해를 입고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추진력이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날이 견고해지고 더욱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향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의 밀라키 예언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미래를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방종우 야고보 신부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전례와 미사의 영성

(1) 전례의 목적

"예전에 다른 신부님은 이렇게 하시던데"

신부님은 왜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전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맞냐, 틀리냐' 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바른 순서와 바른 자세에 따라서 바른 전례 예식이 거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치와 정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마치 전례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두는 전례의 목적에 따른 감사와 찬미 그리고 청원의 표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이에 대해 전례 현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례에서, 특히 성찬례에서, 마치 샘에서처럼,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고, 또한 교회의 다른 모든 활동이 그 목적으로 추구하는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전례 현장 10항)

여기서 우리는 전례가 지녀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통해 성화됩니다(전례의 하강적 측면).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전례의 상승적 측면). 모든 전례 안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두 가지 목적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무언가 맞냐 틀리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진정 하느님 은총으로 성화되는 순간인지, 그리고 참된 하느님 찬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음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먼저 살아갈 수 있을 때 전례 때 행하는 우리의 모든 몸짓과 기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 같을 것입니다.



김혜중 요한 세례자 신부